

“초대교회의 위기 대처”

사도행전 12:1-19

지난주에는 장례식 집례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넷이 있는데 아직 아무도 결혼하지 않은 나이로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때인데,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책 서문에 편지글 하나가 실려 있습니다. 그 편지는 간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천국으로 간 성도 한 분이 목사님께 남긴 편지였습니다. 그분은 오년 전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이후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간암이 발견되고 점점 증세가 악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열정적으로 다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편지글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 드립니다. 이제 새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섬기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한중의 흉으로 돌아옵니다. 이 죄인이 다 못한 섬김까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바라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쓰실 때까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목회하실 때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때 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 목사님은 오늘 아침에도 그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이 먼저 간 그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그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지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때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영어성경에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극대화하라"

우리 인생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순탄하고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곳곳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건강, 사업, 가정의 위기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잘 대처하여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경우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신앙도 잃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인간의 힘이 다하는 그 순간, 즉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최후의 상황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측정해 볼 수는 없지만, 인생의 위기 앞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며 그 사람의 신앙적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도들 중에 야고보가 헤롯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고 결국 베드로까지 잡혔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력에 큰 손실이 생긴 것입니다.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잡으매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 내고자 하더라” (행 12:4)

야고보 사도도 죽었는데 만약 교회의 중심축이자 리더였던 베드로까지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교회는 커다란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때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대처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행 12:5)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고,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 영어성경에는 'Honestly prayer' 즉 '진실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풀려난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데 무려 네 명의 군사가 네 패로 나누어서 모두 열 여섯명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 도망하지 못하게 두 쇠사슬에 묶여서 군사 두 명 사이에 잤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도망칠 수가 없고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걸음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행 12:8-9)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너무 힘들 때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세가지 이유중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설마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하는 믿음없음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영적 교만 때문입니다.

기도 안해도 별 큰일이 없는데, 지금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때문입니다.

셋째, 영적 계엄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기도하는 것이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고 계엄으로 인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세번째 이유에 속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은 알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실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는 부지런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지속적으로 성령충만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적 결단과 성실한 신앙적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로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보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 삶의 패턴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바꾸어야 합니다.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환경은 결코 우리의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과 감사한다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또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모두 결코 할 수 없는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속에서의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세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다. 다니엘은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의 공격을 받을 때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대를 구성한 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대하 20:21)

적군들이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위기의 상황, 절망의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과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위기의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적절하게 그 위기를 잘 대처했었는지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3. 우리 인생속에서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옥에 갇힌 초대교회의 상황,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상황과 같은 위기를 만났는데, 그 상황속에서 기도로 극복한 경험이 있었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4. 위기의 순간에 단지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이 나올 법도 한데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거나 그런 모습을 본 경험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위기를 만나면 불평이 가장 먼저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불평이 자신의 생활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작은 어려움에도 습관처럼 불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고난 앞에서는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정말 신뢰한다면,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은 결과적으로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또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대하 20:7)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영적 공격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시험을 나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환경 속에서 대처하는 방법은 모두 제각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속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공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